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20. 프라도 미술관 2

프라도 미술관은 사진 찍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미술관에서는 플래쉬만 터뜨리지 않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예 금지 되어 있었다. 나는 미술관 관람을 하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작품을 보면 기록을 위해 찍어 놓곤 했다. 프라도에서는 그것을 전혀 할 수 없으니 처음에는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 마음은 관람을 시작하면서 점차 사라져 갔다. 사진을 찍겠다는 욕심이 없어지니 아주 자유로운 기분이 되어 관람에만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프라도 미술관 1층에는(미술관 지도에는 0층이라고 되어 있다)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스페인 회화를 비롯해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 그리고 플랑드르 회화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미술관 내부에는 아치형 높은 천장에 자연광이 들어 오고, 스페인 화가들의 이름을 딴 벨라스케스 문, 고야 문, 무리요 문 등 3개의 문이 있다. 우리는 기념품 가게와 카페테리아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미 전시관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바닥은 대리석, 벽은 올리브 빛깔이 은은하게 배어 있는 녹색,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 천장은 아이보리 색이다. 프라도의 전체적인 인상은 크고, 넓고, 시원하고, 고요하면서도 위풍당당했다.

우리는 한없이 펼쳐진 그림의 바다 속을 헤엄쳐 가듯 앞으로 나아갔다. 크고 작은 전시관들이 이어졌으며 책이나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림들이 실제로 눈앞에 즐지어 나타났다. 1층에는 페드로 베루케테, 반 데르 와이덴, 히에로니무스 보쉬, 뒤러, 라파엘, 로살레스, 소로야 등의 전시관이 있었는데 나는 지도를 보고 제일 먼저 55B 전시관에 있는 알브레히트 뒤러의 자화상을 찾아갔다.

이십 대의 어느 날, 스페인으로 여행 간 친구로부터 엽서를 한 장 받았었다.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뒤러의 '26세의 자화상'이었다. 북유럽 르네상스의 대가였던 뒤러가 젊었을 때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회화를 배우고 고향으로 막 돌아온 당시에 그린 자화상으로 예술가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는 그림이다. 쏘아보는 눈빛, 섬세하고 유려한

붓질, 화가의 꿈이 담긴 듯 펼쳐진 르네상스 스타일 풍경 등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자화상이었다. 나를 매혹시킨 그 엽서를 나는 평생 간직했다. 언젠가는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가서 그 자화상을 직접 보겠다는 꿈과 함께, 한평생이 흘러간 지금, 나는 나이 든 아줌마가 되어 마침내 이 그림을 보러 왔다.

뒤러의 자화상은 아주 조그만 그림이었다. 금박으로 장식한 화려한 액자에 담겨 프라도의 녹색 벽 위에 고즈넉이 걸려 있었다. 엽서로만 가지고 있던 그림을 실제로 본 느낌은 마치 옛 친구를 수십 년 만에 만난 듯 반갑고 애뜻하고 정다웠다. 청춘의 꿈과 기억이 그대로 담겨 있어 왠지 눈물이 나기도 했다. 그림의 사연을 알고 있는 ROI 내게 바짝 붙어 서서 가만히 속삭였다. "엄마... 그림 앞에 잠깐 서 봐... 기념 사진 찍어 줄게..."

나는 얼른 눈물을 닦고 그림 앞에 엉겨주름 섰다. 사진을 찍으면 안되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R의 말대로 오랜 세월 그리워 해 온 그림과의 만남을 기념하고 싶기도 했다. R은 잼싸게 주위를 둘러 보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코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번개같이 사진을 찍어 주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떼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뒤러는 막시밀리안 황제, 카를 5세 등의 후원을 받으며 활동했다. 그가 1498년에 그렸던 이 자화상은 뒤러가 죽은 후 백여 년 후에 그의 고향 뉴렘버그의 시의회가 영국의 찰스 1세에게 바쳤고, 찰스 1세가 왕좌에서 쫓겨나 처형 당한 후 스페인 대사 알론소 카르테나스가 구입해 돈 루이스 데 하로라는 귀족에게 바쳤다. 하로는 1654년에 이 자화상을 스페인 왕 펠리페 4세에게 바쳐 이 그림은 스페인 왕실 소유로 남았다가 1827년에 프라도 미술관으로 들어오게 된다. 522년 전에 그려진 이 보석같은 그림은 그렇게 프라도 미술관에서 나와 만나게 되었다.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 모두 나름의 사연이 있겠지만 이것은 뒤러와 나만의 스토리이다. 나는 이곳에 와서 그의 '26세의 자화상'을 실제로 만났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프라도 미술관에 온 목적이 완벽히 달성되었다.

메디케어 처방약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1500-\$2000/yr) - (지역별로 다름)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29년의 오랜 경험으로 어르신들께 필요하신 혜택을 최선으로 찾아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상담하세요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최고의 질병 치료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심각한 질병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해
꿀약국 예방접종센터에 문의 하세요.

COVID-19 백신 접종 가능

이민국(USCIS) 필수 예방접종 가능

건강한 약국, 꿀약국!

가족같은 약국, 꿀약국!

Kaiser Permanente, Rite Aid
10년 약사 경력!



꿀약국 예방접종센터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 Shingles(대상포진)
- Flu(독감)
- Prevnar 13, Pneumovax 23(폐렴)
- Hepatitis A, Hepatitis B(간염)
- M-M-R(홍역, 볼거리, 풍진)
- Meningitis(수막염)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Typhoid(장티푸스)
- HPV-Human Papilloma(인간 유두종)



약학박사 로렌 민 / 약학박사 안젤라 권
매니저 벤자민 유

Tel: 562.403.2332

7002 Moody St. #106, La Palma, CA 90623

Fax: 562.403.2331

Honeyrx123@gmail.com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PO, HMO 받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환영



Honeyrx